

두산아트랩 공연 2024 ④

김민주

# 명태 말고 영태

연극

21(목)~23(토) 목금 8시 토 3시

\*아티스트 토크 23(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팻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ch/7508

## 작·연출 노트

동태, 구태, 헛태, 북어, 꺾태, 노가리, 먹태-

명태는 보관 방법, 잡는 방식,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는 모습과 방식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김영태는 김 사장, 김 선생, 김 박사, 김 기사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386 세대, 58년 개띠, X 세대, MZ 세대, 알파 세대...

이들의 이야기는 세대 갈등, 삶의 애환 등으로 이슈가 되어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세대'의 일부로 마주 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 곳곳에서 언제나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만들어낸 시대가 아닌, 시대가 만들어낸 세대를 통해서, 지금은 시간에 흘러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것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를 뜨겁게 타오르는 해질녘 노을 같은 김영태를 만나고자 합니다.

“생선 명태 말고 사람 영태도 밑물과 썰물에 나이테가 생겨 김 선생 김 기사 김 과장 김 교수 김 사장되었네! 그럼 이제 명태 말고, 영태 좀 만나보자!”

-<명태 말고 영태> 대사 중-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관객 설문 바로 가기](#)

## 작품 속 김영태

- 금태부대 김 선생
- 춘태운수 김 기사
- 선태상사 김 과장
- 덕장대학 김 교수
- 명란수산 김 사장

## 명태의 다른 이름들

\*작품에 나오는 명태 용어는 밑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보관 방법에 따라

- 동태 : 잡아서 급속 냉동 시켜 열린 명태
- 코다리 : 내장을 빼서 반건조 시킨 명태
- 황태 :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식감이 부드러운 명태
- 노랑태 : 잘 말라서 노란색을 띠는 황태
- 북어 : 수분이 없도록 바삭 말린 명태
- 더덕북어 : 잘 말라서 품질이 좋은 북어
- 무두패 : 머리를 미리 자르고 몸통만 걸어서 건조한 명태
- 찐태 : 날씨가 더워서 만들다가 물러버린 황태
- 파태 : 만들다가 몸통이 잘려 질감이 거칠어진 황태
- 먹태(흑태) : 따뜻한 날씨에 말려 황태와 달리 검은 명태
- 무두태 : 말리다가 머리가 떨어진 황태
- 짜태 : 소금에 절이고 천막이 있는 곳에 넓게 말린 황태
- 애태 : 노가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명태
- 깡태 : 얼지 않고 말라서 식감이 딱딱해진 황태
- 바람태 : 강한 바람에 수분이 빠르게 말라 뻗뻗해진 명태
- 백태 :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하얗게 마른 황태
- 골태 : 잘못 말려서 붉고 속이 부드럽지 않은 황태
- 봉태 : 내장을 빼지 않고 만든 황태
- 낙태 : 건조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상품가치가 없는 명태
- 건태 : 마른 명태
- 흑태 : 고온 건조된 명태
- 간태 : 소금에 절여진 명태

### ■잡는 방식에 따라

-금태: 명태가 예전과 다르게 귀해지면서 붙은 이름

-선태: 갓 잡아서 매우 싱싱한 상태의 명태

-생태: 얼리거나 말리지 않은 잡은 그대로의 명태

-노가리: 태어난 지 2~3년 된 어린 명태

-왜태: 다 성장했지만 크기가 작은 명태

-난태: 산란을 하지 못하고 알이 밴 상태

-꺾태: 산란을 마치고 몸이 마른 상태로 잡힌 명태

-분태: 날씨가 나빠 그물을 못 건져 하얗게 변한 명태

-조태: 주낙으로 잡은 명태

-망태: 그물로 잡은 명태

-그물태: 그물로 잡은 명태로 망태와 같은 이름

-낙시태(주태): 낙시로 잡은 명태로 가격이 비쌈

-지방태(진태): 동해안 연안 근해에서 잡은 명태

-원양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잡힌 명태

-강태(간태): 강원도 연안에서 잡은 명태

-막물태: 가장 끝물, 나중에 잡힌 명태

-춘태(노태): 봄철에 잡히는 명태

-하태(여름태): 무더운 여름 삼중망 그물로 잡은 명태

-추태(가을태): 음력 9월 가을에 잡은 명태를 뜻함

-동태: 겨울에 잡은 명태도 동태라고 말한다.

-사태: 음력 4월에 잡힌 명태

-오태: 음력 5월에 잡힌 명태

-북태: 일본의 북해도에서 잡은 명태를 말린 경우

-수입태: 한국산이 아니라 일본 러시아 수입 명태

###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아익태(아기태): 20~30cm 정도의 소형 명태

-소태: 30cm 내외의 작은 명태

-중태: 적당한 크기 40cm 수준의 중간 크기의 명태

-대태: 50cm 정도 크기의 큰 명태

-왕태: 55cm 이상 대형 명태

-아가미태(가아미가시): 어린 시기에 잡혀 아가미

가시가 달린 명태

-바다송이: 아가미 가시가 사라지고 몸통 주위에

작은 송이 모양의 덩어리가 생긴 명태

-상태: 몸통 주위에 두꺼운 비늘이 생겨 몸집이

가장 큰 명태

### ■지역에 따라

-강원도: 각시, 강태, 간태

-충청도: 누기, 각어

-전라도: 노서, 각서, 황태

-경상도: 노태

-제주도: 누더기

### ■기타

-덕장: 물고기를 건조하기 위해 덕을 매어 놓는 곳

-관태: 북어 20마리 한두릅을 묶어서 한 세트로 만들

-짚태: 30괘 600마리의 북어를 한 상자에 넣은 상태

-명태채: 반찬으로 만들기 좋게 명태 살을

떼어냄

-명란젓: 명태의 알을 소금으로 절여서 절인

음식

-창난젓: 명태의 내장에 소금 고춧가루 등을

넣어서 만든 젓

### 명태와 관련된 문화

-고사: 명주실에 북어를 묶어 액운을 없앴

-결혼식: 말린 북어로 신랑 발바닥 치기

-제사: 차례상, 제사상에 올림

### 연극 <명태 말고 영태>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김민주

출연 권은혜 김명연 박경주 박소연 주창환

드라마터그 김옥란

조연출 이해인

무대감독 유성엽 이보한

무대 정승준

조명 김지산

의상소품 김민주

음악 양선용

음향 정금

영상 정혜지 정경은

판소리 자문 이항하

역사 자문 민사원

### [두산아트랩 공연 2025 공모 안내]

일정 2024.6.10~7.10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